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12월 연준 선호하는 물가지수 완만
- Bloomberg: 미 인건비,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낮게 상승
- Bloomberg: 연준 이사 Bowman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 회복 더 원해”
- Bloomberg: 시카고 연준 총재 “인플레이 회복 중이지만 금리 인하 천천히”

#### [미국 금융]

- WSJ: 달러 약세로 금 선물 최고가 기록
- Bloomberg: 나스닥 100, 딥시크 여파 회복했다.

#### [미 행정부]

- WSJ: 내일 시작되는 트럼프 25% 관세의 예상 여파
- Foreign Policy: 트럼프, 중국과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7% 이하 유지
- CNBC: 12월 주택 매매 계약 건수 5% 감소

#### [오일]

- WSJ: 미 관세 위협에 유가 하락

#### [자동차]

- CNBC: 트럼프 25% 관세, 자동차 산업 위협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Exxon과 Chevron, 투자자 배당액 사상 최고치 기록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Fed's Favored Inflation Gauge Ends 2024 With a Muted Advance**

##### **12월 연준 선호하는 물가지수 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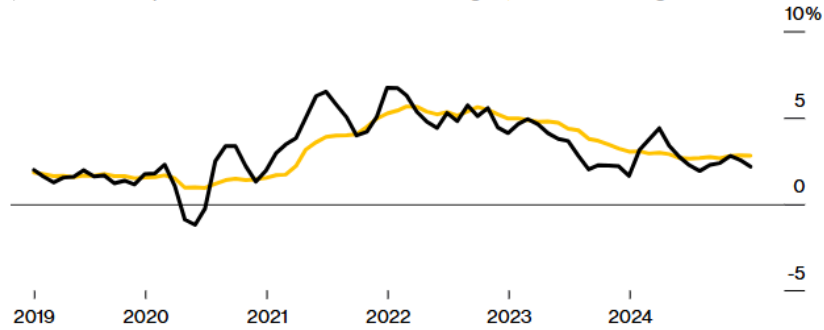
- 오늘 금요일 발표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와 실질 소득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개인 소비 물가 지수는 11월과 비교하여 0.2% 상승했다. 그리고 작년 동월에 비해 2.8% 증가했다고 경제분석국은 밝혔다.
- 인플레이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난 3개월 연율로 본 핵심 PCE 물가 지수는 2.2% 상승해 지난 7월 이래 가장 낮았다.

- 하지만 실질 가처분 소득은 두 달 연속 늘지 않고 저축률은 지난 2년간 가장 낮은 3.8%로 하락했다. 소비자들이 저축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Fed's Preferred Inflation Gauge Remains at 2.8%**

Three-month annualized rate for core PCE shows decelerating trend

US core PCE price index: 3-month annualized change 12-month change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Labor Costs Rise From Year Earlier by Least Since 2021**  
**미 인건비,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낮게 상승**

- 미 인건비 상승세가 작년과 비교해 연속 4개월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임금 상승 부담이 줄어들어 인플레이의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임금과 직장 혜택 관련된 변화를 추적하는 고용 비용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 상승해 지난 3년여 기간 중에 가장 성장세가 더딘 것으로 오늘 금요일 연방노동청은 발표했다.
- 분기별로 보면 3분기에는 0.8%, 4분기에는 0.9% 상승했다.
- 이 같은 발표를 보면 노동 수요가 둔화되면서 임금 상승세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 감소로 나타나고 금리 인하를 위한 인플레이 둔화의 추가적인 증거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Bowman Wants More Inflation Progress Before Cutting Rates**

**연준 이사 Bowman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 회복 더 원해”**

- 연준 이사 Michelle Bowman은 New England CEO Summit 모임 전에 “인플레이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해야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 경제가 강한 상황에서 얼마나 제약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 그는 이번 주 수요일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동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 그는 “경제가 건조하고 주가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전반적인 금리와 차입 비용 수준이 경제 상황을 크게 억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s Goolsbee Lauds Inflation Progress But Supports Slower Pace**

**시카고 연준 총재 “인플레 회복 중이지만 금리 인하 천천히”**

- 시카고 연준 총재인Austan Goolsbee는 오늘 발표된 물가 지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물가 상승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미국 경제가 연준의 물가 목표 2% 경로에 있어 편안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 관련 비용 상승이 둔화되는 점을 지적했다.
- 그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인플레가 낮아지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그는 “연준은 경제가 부추기거나 제한하지도 않는 이른바 중립 금리에 가까워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WSJ: Gold Futures Set New Record on Safe-Haven Demand, Weaker U.S. Dollar**

**달러 약세로 금 선물 최고가 기록**

- 달러와 국채 금리가 약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으로의 금 선물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 4월 금 계약은 2.7% 상승한 온스당 2천8백45불20센트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는 10월 하반기 2천8백달러80센트였다.
- 금값은 최근 며칠 변동성을 보였다. 투자자들이 이번 주 월요일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1.4% 하락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어제 목요일에도 금값은 크게 올랐다.

WSJ 기사

### **Bloomberg: Nasdaq 100 Close to Erasing DeepSeek-Fueled Losses: Markets Wrap**

**나스닥 100, 딥시크 여파 회복했다.**

- 대형 기술주의 향후 전망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우려를 씻어냈다. 이에 따라 급락했던 증시가 회복세를 보였다.

- 지난 수일 동안 중국 AI 스타트업 업체 딥시크가 저렴한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미 기술주가 급락했었다.
- 나스닥은 애플이 인텔의 밝은 실적 전망 발표로 거의 1.5% 상승했다. 또한 오늘 엔비디아 CEO와 트럼프의 면담이 있을 예정이다.
-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채권은 큰 변동이 없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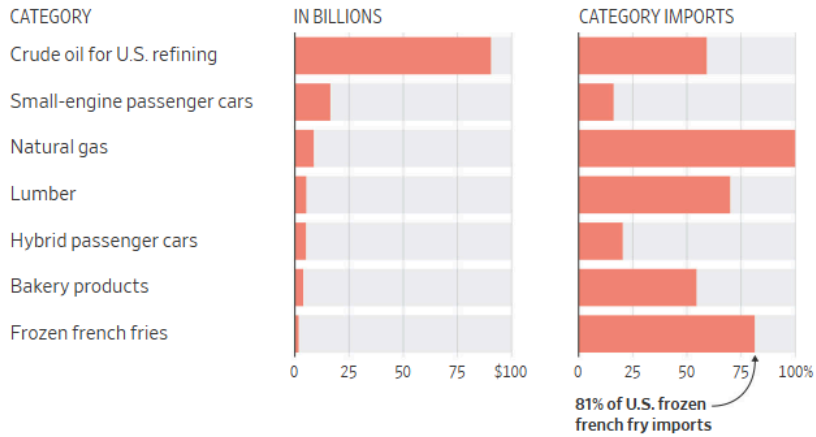
[미 행정부]

**WSJ: Trump's 25% Tariff Deadline Is Almost Here. What to Expect.**  
**내일 시작되는 트럼프 25% 관세의 예상 여파**

- 트럼프가 내일 토요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자 문제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대규모 제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 (reshoring)으로 보인다.
- 북미 기업들은 수십 년간 무관세 무역에 익숙해졌다. 그만큼 많은 혼란과 법적 소송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식료품 가격과 난방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철강 산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연준은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인플레이가 약 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식료품은 수입 비용이 25% 상승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 원유 수입의 60%는 캐나다에서, 10%는 멕시코에서 들어온다. 둘을 합치면 미국 원유 사용량의 30%에 해당한다. 따라서 새로운 관세는 유가를 올리고, 난방비를 올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석유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에 여러 공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 부품을 조립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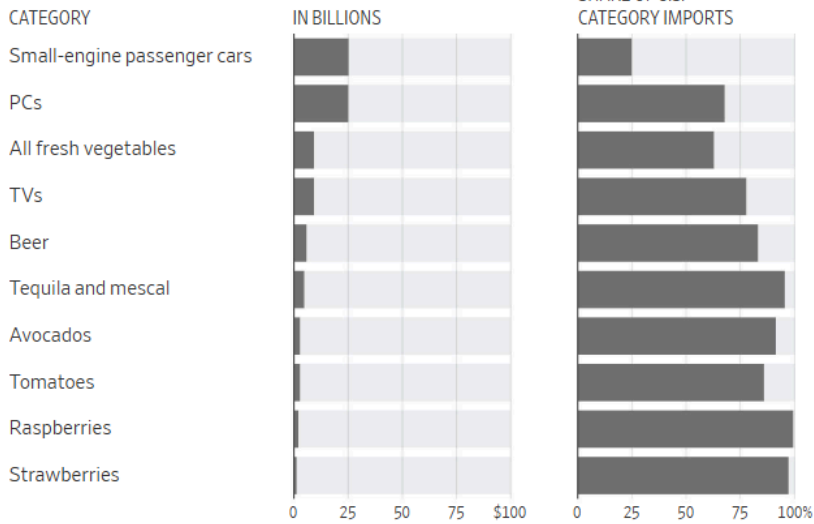
- 철강 산업의 경우 오랫동안 해외 저가 철강업체와 경쟁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관세를 반길 것이다.

Select imports to the U.S. from Canada in 2023



Source: Trade Partnership Worldwide analysis of U.S. Census Bureau data

Select imports to the U.S. from Mexico in 2023



Source: Trade Partnership Worldwide analysis of U.S. Census Bureau data

WSJ 기사

Foreign Policy: How Trump Could Strike a Trade Deal with China  
트럼프, 중국과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Wendy Cutler,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부소장, 한미 FTA 미국 협상 대표 역임

-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타겟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당시에는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고, 작년 말에도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 하지만 커져가는 관세 위협과 별개로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불명확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재무장관 Scott Bessent는 “관세는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이다. 관세 부과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등 문제로 다음 무역 합의를 체결하지 못했다.
- 이번 새로운 협상 때 미국은 지적 재산 보호, 농업, 기술 이전 같이 1단계 무역 합의 때 요구한 사항 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새로운 분야를 요구 사항에 추가할 수 있다.
- 또한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터리 분야 등을 불공정 거래로 문제 삼을 수 있다.
- 많은 중국 기업이 이미 미국의 관세를 피해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으로 사업을 이전하고 있다. 우회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여러 번 사용한 위안화 가치 절하를 통한 수출업체 피해 완화를 방지해야 한다.
- 만약 중국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응징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 Foreign Policy 기사

#### [주택]

#### **Bloomberg: Mortgage Rates in US Inch Down, Keeping 30-Year Loans Below 7%**

#### **미 모기지율 7% 이하 유지**

- 미 모기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 30년 만기 모기지율은 6.95%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모기지율의 하락은 올해 봄 주택 구매 시즌에 수요를 늘릴 수 있다.
- 하지만 여전히 모기지율과 주택 가격은 높은 것으로 느껴진다. 작년 말 모기지율이 상승한 이후 12월 미국 기존 주택 구매 계약은 5.5% 하락했다. 그전까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 트레이더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모기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 Bloomberg 기사

#### **CNBC: Pending home sales drop sharply in December as mortgage rates surge back over 7%**

#### **12월 주택 매매 계약 건수 5% 감소**

-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 따르면 12월 기존 주택 중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수는 전월에 비해선 5.5%, 전년에 비해선 5% 감소했다. 그전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 30년 만기 모기지율은 12월 6일 6.68%에서 12월 19일 7.14%까지 치솟았다. 7%의 모기지율은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 S&P Case-Shiller 전국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작년 늦가을과 초겨울에 물가가 상승한 것이 모기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주택 수요는 1월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모기지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 감소했다.

CNBC 기사

## [오일]

### WSJ: Oil Poised for Weekly Loss Amid U.S. Tariff Threat 미 관세 위협에 유가 하락

- 미국의 관세 위협이 계속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가가 주간 약 2%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0.2% 하락한 배럴당 75.72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1% 하락한 72.66달러를 기록했다.
- DNB Markets의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내일 토요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었다.
- 분석가들은 해당 관세에 캐나다산 원유 수입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은 현재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와 OPEC+의 다음 주 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WSJ 기사

## [자동차]

### CNBC: Implemented or not, Trump's 25% tariff threat is challenging the auto industry

#### 트럼프 25% 관세, 자동차 산업 위협

-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토요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세가 실제로 시행되면 자동차 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비즈니스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구체화되길 바라고 있다. GM은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월스트리트의 기대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 Barclays의 분석가 Dan Levy는 “GM의 4분기 실적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당분간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Exxon, Chevron Yearly Profits Down as Investor Payouts Hit Fresh Highs****Exxon과 Chevron, 투자자 배당액 사상 최고치 기록**

- Exxon과 Chevron의 작년 투자자 배당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다시 석유 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빅테크 기업 등 다른 업계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 Exxon의 연간 수익은 337억 달러로 2023년에 비해 6.5% 감소했지만, 최근 10년 중 3번째로 높은 연간 수익이었다. 또한 배당금으로 360억 달러를 지출해 S&P500에서 6번째로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이었다.
- Chevron의 연간 수익은 177억 달러로 2023년에 비해 약 17% 감소했다. 하지만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27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WSJ 기사

**[보고서]**

**美 작년 4분기 성장률 2.3%..."흐름은 견조, 앞날은 불투명"**  
**작년 3분기·전문가 전망치보다도 낮아...작년 연간 성장률 2.8%**  
**"트럼프의 관세·이민자 추방, 하반기 성장둔화·물가상승 이어질수도"**

미국 상무부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2.3%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작년 3분기(3.1)보다 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6~2.7%)와 비교해 낮았다.

2024년 연간 성장률은 2.8%로 집계됐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